[한국도시설계학회 2008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지역 장소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활용계획

- 명륜동 장면가옥을 중심으로 -

Local Place-Making through Utilizing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 A Case Study of Historic Jang-Myun House -

이유리* · 박소현**

Lee Yu-Ri · Park So-Hyun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표 1> 근대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현황 (2008년 2월 기준)

지정 유형 / 계	등록 문화재	지정 문화재			
		국가 지정	시·도 지정		
		사적	유형 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
548	368	33	42	71	34
			147		

근대문화유산은 우리의 근대적 생활상 및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오명과 개발지향적인 정책, 경제개발 위주의 성장으로 보존되지 못한 채 많은 부분 사라져버렸다.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아온 소수의 근대건축문화재는 다행인 경우이나, 지정되지 못한 유산들은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언제 철거되거나 훼손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1년 3월 1일 '등록문화재'가 도입되었다. 등록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원형보존을 목적으로 보호 및 제한을 받는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문화재의 외관 보호를 주 대상으로 하고 내부는 문화재별 용도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변경이나 수리·수선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에 비해 보다 자유롭게 여건에 따라 외관이나 원형의 일부를 변형,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만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자칫하면 문화재가 가져야하는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으며, 등록만 해놓은 뒤 마땅한 활용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등록문화재 중 건축적 가치는 다소 부족하지만 인물의 의의가 중요하여 등록문화재로 지정 된 '인물기념시설'인 경우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또한 활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기념관식의 점적인 보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도시적 측면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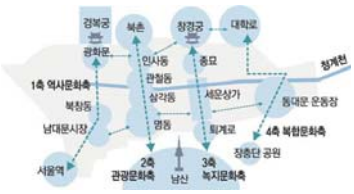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등록문화재를 지역단위 안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등록문화재와 지역 문화·역사자원의 연계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의 고찰 및 등록문화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인물기념시설 등록문화재의 박물관이나 기념관의 편중된 활용이 아닌 생활문화재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 리모델링 측면에서 작은 단위 건물을 매개체로 지역의 역할을 정의하고 지역 장소성에 기반한 역사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재생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URIC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All Digital Rights Reserved.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http://www.auric.or.kr

2. 연구방법 및 과정

본 연구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지역 재생 측면에서 등록문화재 및 역사자원들의 지역 장소적 활용에 대한 조사단계로서 문헌조사를 통해 등록문화재의 지역적 활용 및 보존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였다. 2단계는 진정성 차원에서 가옥의 기록과 인터뷰를 통해 장소적 의미를 도출하여 활용 및 보존방안을 찾고 지역공동체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재생적 연계 방안으로서 작은 단위 건물매체로 지역이 어떻게 재생 될 수 있을지 지역차원에서 계획 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대상



(그림 1) 서울시 도심재창조 4대 개발축
출처: 서울특별시, 2007

서울시 등록문화재중 인물기념시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장면가옥[1]과 가옥이 위치하고 있는 명륜동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 (혜화 로터리-우암로-서울과학고에서 성북동길이 만나는 지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가옥이 위치하고 있는 명륜동 및 혜화동은 '서울시 도심재창조 계획' 사업의 4축인 대학로-동대문-남산의 '복합문화 축' 조성계획 중 대학로 지역과 바로 인접한 곳이다. 2008년 10월 '혜화 고가도로'가 철거[2]되면 대학로에서부터 시각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서울성곽과 역사, 문화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는 성북동 일대까지의 보행환경을 높여 줄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집중적으로 개량한옥이 공급된 곳으로 그 당시 도시 조직 및 개량한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장면가옥은 운석 장면총리가 1937년부터 운명할 때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일식과 서양식의 목조로 지어져 근대기의 주거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장면가옥은 현재 후손들의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비워져있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Ⅱ. 이론적 고찰

<표 3> 등록문화재 구분

등록문화재 구분	세부사항
건축물	주택, 회관, 공장, 학교, 등대, 망루, 역 등
산업 구조물	교량, 발전소, 터널, 댐, 굴뚝, 창고, 급수탑 등
생활문화 유산	이·미용원, 세탁소, 목욕탕, 방앗간, 약방 등
역사유적	역사적 사건 또는 사실의 현장
인물 기념시설	생가, 거주지, 활동근거지
동산 유산	미술품, 영화, 어차(御車), 등

출처: 문화재청, 2006 표를 참고하여 재작성

1. 등록문화재

1) 등록문화재 개념과 특징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 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재 기준에는 미흡하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시설물 등의 근대문화유산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보호 의지를 바탕에 두고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며 유연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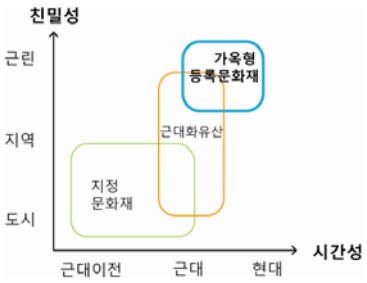
지정문화재 제도와는 다르게 문화재의 외관 보호를 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부는 문화재별 용도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변경하거나 수리·수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의 등록대상은 건축물, 인물·역사유적, 근대 산업시설물, 생활·문화 유산등 건조물뿐만 아니라 2006년에 들어선 영화나 미술품등도 지정되고 있어[3] 지정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인물기념시설 등록문화재 현황

등록문화재중 문화재의 가치가 건축물에 있지 않고 역사적인 인물의 장소적 의의에 기인하여 등록된 것을 '인물기념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인물기념시설

1) 등록문화재 제 357호, 2007년 10월 1일 지정
2) 2007. 11. 23, 서울시 발표
3) 개정(2005.1.27)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건조물 등 부동산문화재 외에 동산문화제도 그 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AURIC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All Digital Rights Reserved.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http://www.auric.or.kr



(그림 2) 가옥형 등록문화재의 범역

등록문화재는 총 21건이며, 이중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인물기념시설 등록문화재는 총 14건이다. 이러한 등록문화재들은 다세대주택화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개보수를 하기위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활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치중인 경우가 많다. 또한,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기념관식의 원형보존의 활용형태만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도 주거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물기념시설 등록문화재일 경우는 이미 원형이 많이 훼손되어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인물기념시설 등록문화재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서울시내 현재 남아있는 한옥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들은 아직 역사환경 및 역사자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들의 개발이 일어나고 있어 장소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 재생이 필요하다. 둘째, 주거지역의 일생 생활과 관련된 생활문화재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인물중심 등록문화재는 가옥이라는 특성 때문에 근린생활영역에 속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지정문화재나 다른 형태의 등록문화재 보다 친밀성이 높다. 이러한 점 때문에 생활문화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단순히 남기는 보존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서울시 인물기념시설 등록문화재 현황

	문 화 재 명	종 목	소 재 지	현 재 용 도	소 유 자	지정등록일	사 진
	누상동 이중섭 가옥	제86호	서울 종로구 누상동 166-10	개인주택	정종호	2004.09.04	
	통인동 이상 가옥	제88호	서울 종로구 통인동 154-10	한복집, 서당	(재)김수근문화재단	2004.09.04	
	홍파동 홍난파 가옥	제90호	서울 종로구 홍파동 2-16	공연, 전시장	서울시 종로구청	2004.09.04	
	이상범 가옥 및 화실	제171호	서울 종로구 누하동 178, 181	개인 주택 및 화실	가옥: 조용중 화실: 서울시 종로구	2005.04.15	
	원서동 고희동 가옥	제84호	서울 종로구 원서동 16	방치중	(주)한샘	2004.09.04	
	계동 배렴 가옥	제85호	서울 종로구 계동 72	Guest house (외국인용)	개인	2004.09.04	
	서울 북촌문화센터 (구 민형기 가옥)	제229호	서울 종로구 계동 105	북촌문화센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2006.03.02	
	돈암장	제91호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3	개인주택 및 인물기념시설	김수근	2004.09.04	
	동선동 권진규 아뜰리에	제134호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50	보수, 복원중	권경숙	2004.12.31	
	최순우 옛집	제268호	서울 성북구 성북2동 126-20외 2필지	기념관	(재)내셔널트러스트 유산기금	2006.09.19	
	장면가옥	제357호	서울 종로구 명륜동 36-1	방치중	종로구청	2007.10.01	
	번동 창녕위궁재사	제40호	서울 강북구 번도 93	전통 혼례 예식장	안동김씨종중동강공파 (김귀년)	2002.09.13	
	홍지동 이광수 가옥	제87호	서울 종로구 홍지동 40	개인주택	김재철	2004.09.04	
	평창동 박종화 가옥	제89호	서울 종로구 평창동 128-1	개인주택	개인	2004.09.04	

AURIC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All Digital Rights Reserved.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http://www.auric.or.kr

2. 선행연구 고찰

등록문화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계획연구와 제도연구 그리고 사례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등록문화재 계획과 관련하여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기록이나 문헌,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공간에 대해 물리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박물관, 기념관 또는 게스트하우스 등의 단편적인 활용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최준오, 2005; 이근혜, 2006; 전병옥 외, 2007; 이민경, 2007). 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이주형, 2006; 장석하, 2006)에서는 등록문화재 건축용도 유형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참고할 사항이 많았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건축물의 기록이나 문헌, 현장조사 등 단편적인 조사만을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당시 건물 사용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의미를 심도 있게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위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근대건축물의 디자인적 특성을 분석하거나(이완건, 2005) 디자인적 수법이나 리노베이션 계획안을 제시하는 연구(안주영, 2001; 노정은, 2007)등이 있었다. 등록문화재의 제도연구에는 일본 등록문화재 제도와 비교·고찰하여 우리나라의 등록문화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으며(김지성, 2005), 사례연구에서는 일본등록문화재의 상업용도 활용사례(임태희, 2004)와 등록문화재중 전시시설로 활용사례 (강경남, 2005)등이 있었다.

역사가로와 관련해서는 역사환경을 고려한 정비방안 제시나 디자인 수법들에 대한 연구(임은영, 2005; 김수태, 2007; 이화연, 2006)이 있었으며 미국 지방도시의 역사적 중심가로 재활성화 방법 분석(강동진, 2007)을 살펴보고,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기본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등록문화재의 특성을 살피고 활용계획을 제시한다는 점에선 위 연구들과 유사하지만, 건축물의 활용뿐만이 아니라 지역 리모델링 측면에서의 제안을 도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Ⅲ. 대상지 현황

★ 장면가옥
■ 등록문화재
■ 학교
■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소극장)
■ 혜화동사무소
■ 한옥
━ 서울성곽

(그림 18) 대상지 위치

1. 대상지 역사 및 형성

현재 명륜동, 혜화동은 서울시에서 도시형한옥이 남아있는 주거지역 중 한 곳이다. 시정개발연구원 2006에 따르면 서울시 한옥주거지의 형성을 보면 1920년대를 전후로 해서 도심내의 주택수요를 해결하고자 대량생산공급방식으로 조선인 건축업자들에 의해 도시형한옥이 지어지기 시작하여 혜화동은 1920년대, 명륜동은 1945년 전후로 한옥들이 지어지게 되었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옥 주공간은 거주자들의 생활특성 변화에 따라 변용되면서 명륜동 도시한옥은 「 자형의 튼 ㅁ자형 배치, ㅁ자 혹은 ㄷ자형 배치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적당한 시기에 개보수 및 정비가 이루어 지지 않고 다세대 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등의 재개발에 의해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명륜동 1가, 2가와 혜화동을 가로지르는 중심가로는 효종 때의 유학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이름을 따서 우암로로 불리고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연건동 ·이화동으로 흐르는 홍덕동천(興德洞川)이라는 시내가 흘렀으며 빨래터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 시내를 건너는 2개의 토교(土橋)가 있었다. 위에 위치하고 있던 것을 상토교, 아래에 위치하고 있던 것을 하토교라 불렀는데 하토교가 장면가옥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있었다. 이 지역은 산수가 매우 맑고 아름다워 봄부터 가을까지 온갖 꽃이 잇달아 피어서 늘 꽃동산을 이루었으며 앵두밭이 많아 현재 길이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혜화동 로터리는 1968년 11월 궤도가 철거되기 전까지 전차가 돌아나갔던 종점으로 그래서 그 형상이 아직도 동그랗다. 또한, 옛 국립대학격인 성균관

AURIC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All Digital Rights Reserved.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http://www.auric.or.kr

이 위치하여 옛부터 이 일대가 유학교육이 성했던 지역이었던 것과 관련하여 역사가 오랜 교육기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카톨릭 대학을 비롯해서 경신고교, 동성고교, 서울과학고교 등이 옛 교육 중심지로서의 맥을 잇고 있다.

(그림 19) 1960년대 혜화동 로터리의 모습

(그림 20) 1976년 혜화동 모습 (영화 '고교얄개' 중)

(그림 21) 1976년 혜화동 골목길의 모습 (영화 '고교얄개' 중)

(그림 22) 윤보선 전대통령(좌)과 장면총리(우)

2. 장면가옥의 개요

1) 인문 사회적 배경[4)]

운석(雲石) 장면(張勉)선생(1899-1966)는 일제강점기에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천주교의 교육운동과 문화운동을 이끌었고 해방 후에는 민주의원과 입법의원의 의원을 역임하여 대한민국 건국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후에도 우리나라 정치사의 전면에서 활약해 왔다. 특히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수석대표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승인을 얻어내고 그 승인을 바탕으로 주미대사로 있던 1950년 한국전쟁을 맞아 유엔군의 한국파병을 이끌어내는 발군의 외교활동을 전개한 뛰어난 외교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신임을 얻어 국회의 압도적 지지 하에 제2대 국무총리에 취임하였다. 1955년 민주당을 창건해 최고위원이 되었으며 1956년 부통령으로 출마해 제4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4.19혁명 이후 제2공화국 국무총리로서 정국을 운영하였으나 5.16 군사 쿠데타로 정치에서 물러나 운명할 때까지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우리나라 격동의 근대사의 한 복판에 서 있던 인물이다.

몇몇의 연구에서는 정치가로서 그가 갖고 있는 결함이 5.16 군사 쿠데타를 촉발하였는가를 찾으려는 목적에서 쓰여져 그 원인을 그의 인간적 약점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면의 가족·교육·신앙적 배경이나 식민지 시대 장면의 삶과 교육·문화 활동 및 해방 후 건국·외교 활동 등을 비추어 보면 다원화 된 시민사회의 확립, 민간 주도형 경제건설, 관용과 대화의 정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등을 보편적인 방향과 원칙하에서 실천하려 한 이상적·선각적 정치가로 볼 수 있다.

2) 건축적 특징 및 거주당시 모습

1937년 8월 신축하여 입주한 장면가옥은 장면총리가 주미대사, 부산 피난, 그리고 부통령 재직시를 제외하고는 196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주했던 곳이다.

한옥구조인 안채를 비롯하여 사랑채, 경호원실, 수행원실이 원형대로 잘 남아 있으며, 한식과 일식 그리고 서양식의 건축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가옥이다. 또한 격동의 현대사 중심에 서 있던 역사적 인물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는 귀중한 가치 등을 높이 평가받아 2007년 10월 1일에 등록문화재 357호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자는 가옥의 활용방안에 있어서 원주인이 원하는 활용방안 또는 계획안을 반영하고자 장면총리의 셋째아들인 장익 주교를 만나 인터뷰[5)]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 진행되었던 주된 내용은 거주당시 가옥에 대한 기억과 지역의 옛 모습이다.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가옥의 비물리적 요소는 장면가(家)의 생활상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근대 주택사적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장면총리의 생전 거주당시 모습과 좀 더 의미 있는 공간에 대해 알고 공간에 대한 단순한 배분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미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가옥의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지역측면의 활용 및 기본계획으로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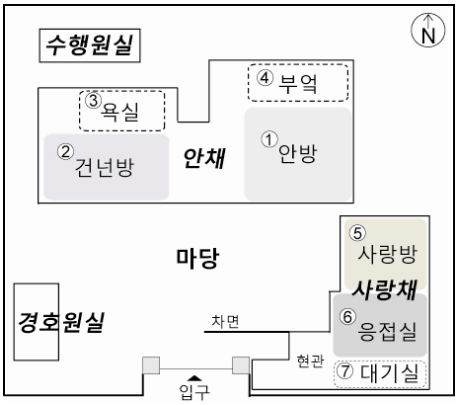
표<9>의 내용은 장익 주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가옥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당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느꼈던 지역의 모습과 추억을 담고 있다.

4) 허동현, '정계진출 이전 장면의 삶과 활동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5) 2007년 10월 25일 강원도 춘천교구에서 약 2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으며 녹취기록은 저자의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다

AURIC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All Digital Rights Reserved.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http://www.auric.or.kr

<표 9> 장면가옥 각 공간에 대한 생활당시 모습

가옥 전체 모습		• 민가가 없고 다 밭이었을 때 집터를 사서 집을 지었음. 그래서 지번이 1호임 (36번지 1호). 집짓는 순서로 호를 매겨서 우체부가 아니면 집을 몰랐음. • 가옥의 부지는 석축위에 조성. 양식이 혼합되어 있으나 안채와 사랑채는 한 번에 다 지은 것임. • 원래는 가옥의 동쪽과 남쪽 입구에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다리를 건너서 현관으로 진입 • 지금은 복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도로면과 골목길에 접하고 있음 • 집의 기둥 밑에 기초가 잡석이 아니라 장댓돌 임 • 6.25때 폭격도 받아서 안채가 조금 기울었음 • 현관의 오른쪽 기둥에는 장면총리의 문패가 6.25전쟁 시 훼손된 모양으로 그대로 남아 있음
생활 모습		• 장면총리는 출근 시 주로 걸어 다니셨음 • 식사는 상을 방으로 들여와서 먹고 여름엔 주로 마루에서 먹었음 • 묵으시는 손님이 계시거나 먼 친척이 와서 묵으면 외상 해서 사랑채까지 상을 들고나갔음 • 우리 재래식 집은 좁아도 넓게 사는 것이 장점임. 양식을 접하면서 좁아졌음, 침대를 갖다놓고 이쪽이 머리면 좋던 싫던 거기로 머리를 두고 자야되며 여기가 식당이다 하면 도리 없이 거기 앉아서 먹어야 함. 가구의 지배를 받고, 물건이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예전엔 낮엔 방이 싹싹 비워있어 평수가 좁아도 넓게 살았음. 웃어른이 오시면 웃어른이 아랫목으로 가신다던가 해서 사람이 축을 세웠음. 이것은 철학적으로 생각이 다른것 임.
집주변 모습	앵두밭	• 집 주변은 명륜동2가 넘어가는 성균관대쪽 까지 다 앵두 밭이었음
	시냇물	• 성북동 쪽에서 부터 흐르는 물이 맑아서 사람들이 빨래를 했었으며 흙으로 덮은 나무다리가 있었음. 다리는 사람 다칠까봐 귀퉁이에 네모난 화강석이 있었고 다리 위는 백토가 아주 살짝 덮여 있었음. 이 백토 가운데가 물 빠지라고 아주 살짝 높음. 그렇게 다져서 사람들이 건넜음 • 참 예쁜 다리였는데 서울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안타까움 • 집 앞으로 빗물 흐르는 칸이 있어 돌 뚜껑이 덮여있었고 돌은 집어서 빼낼 수 있게 구멍이 하나씩 있었음 • 흐르는 물이 청계천으로 흘러갔음
	전차	• 전차가 혜화동 로터리까지 와서 돌았기 때문에 전차 돌리느라 혜화동 로터리가 동그란 형상. 전차가 오면 전기선을 옮겨서 창경궁 앞으로 해서 종로 4가 쪽으로 빠져나갔음. 차고지는 동대문 쪽에 있었음
	학교	• 낙산 일대는 대부분 일본식 학교와 대학 관사가 많이 있었음. 일본사람들도 많이 살았음 • 학교가 엄청 많아서 (여학교: 숙명, 이화, 경기, 동덕, 배하, 진명, 덕성. 남학교: 휘문, 중앙, 서울, 경북, 경기, 배제) 아침이면 학생으로 길이 덮여 골목이 교복으로 까맸음 • 오래되고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지금 다 강남으로 가버려서 안타까움



장면가옥 평면 다이어그램

안채			• 남쪽에는 방과 마루를 두고, 안쪽에는 부엌을 두었음. 부엌건너편에는 욕실과 화장실을 두고 있어 근대기에 공간의 기능을 중시한 배치를 잘 보여주고 있음
	①	안방	• 부인 '김옥윤' 여사가 쓰던 방.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때 같이 쓰기도 하였음 • 일가친척, 가까운 분, 여자 손님을 맞이하는 방이기도 하였음
	②	건넌방	• 2칸짜리 방인데 가운데 미닫이문을 때었다 붙였다 할 수 있었음 • 뒷방이라 불리기도 하였음 • 건넌방 두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왼쪽 방은 5형제 중 터울이 적은 셋이서 쓰고 오른쪽 방은 장녀 '의숙'이 썼음 • 가운데 미닫이문이 있었고 문지방 까지 뽑을 수 있어서 가끔 손님이 많이 오시면 이 방에서 식사를 하심
	③	욕실	• 옛날식 솥(무쇠 솥)이 있었고 나무 뚜껑이 있어서 평소에 닫아놨음 • 목욕할 때는 밖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데워서 물을 퍼서 썼음 • 솥은 매일 들기름으로 반짝반짝하게 닦았음
	④	부엌	• 근대기의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사랑채	⑤	사랑방	• 장면총리가 쓰던 방. 큰아들과 같이 쓰기도 하였음 • 일식 근대 목조슬레이트 구조로서 좌식 구조로 되어있어 사무실로 사용
	⑥	응접실	• 당시 수많은 정치적 모임이 있었음
	⑦	대기실	• 대문을 들어오면 정면에 차면(遮面)담을 두고 있어 손님이 대문을 들어오시더라도 안살림을 바로 볼 수 없었음. 내외를 하였음 •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다가 사랑방에 계시던 장면총리가 손님을 모시고 응접실로 안내하였음
경호원실			• 1947년 정도 지어짐 • 목조구조로 지하에 방공호를 두고 있으며 진입로는 경호원 실을 거쳐 안채로 가게 되어있음 • 아무 가치가 없는 건물로 헐어도 됨
수행원실			• 일본의 창고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나중에 2층 공간의 창고로 1층은 수행원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마당			• 마당에는 원래 우물터가 있었으나 현재 파묻혀 있음 • 수돗가에 있는 석조(石槽)는 드문 사례며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안채 뒤쪽			• 아궁이가 있었고 장작을 높게 쌓아 놓았음 • 생각보다 해가 잘 들어 장독대를 놓아두었음. 장독은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임 • 재연하고 싶음

AURIC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All Digital Rights Reserved.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http://www.auric.or.kr

(그림 24) 명륜동 장면가옥 (거주당시)

(그림 25) 명륜동 장면가옥 (현재)

<표 11> 장면가옥 개요

구 분	내 용			
문화재 명	명륜동 장면가옥			
문화재 등록	등록문화재 제 357호 (지정 : 2007년 10월 1일)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6-1			
소유자	종로구청			
건립연대	1937년 8월 신축입주			
건축구조 및 양식	한일절충식 (한식 + 양식)			
설계 및 시공	김정렬 (처남)			
건물용도	인물기념시설, 주택			
건축면적	148.56㎡			
건축면적	안채	사랑채	경호원실	수행원실
	88.51㎡	42.92㎡	7.24㎡	9.89㎡
구조	한옥목조	일식 + 서양식 목조	일식목조	일식목조
현황사진				

3. 지역 역사·문화자원 파악

대상지에는 근린생활가로인 우암로를 중심으로 성북동까지 근린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역사·문화 자원 또한 많이 위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 영역에 속하는 자원들을 조사하여 각 특성에 맞춰 전통역사문화자원, 지역문화자원, 근대역사문화자원, 근린문화자원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문화 자원들은 혜화동의 시공간적 지속성을 제공해 주며 지역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수용하는 기준으로서 대상지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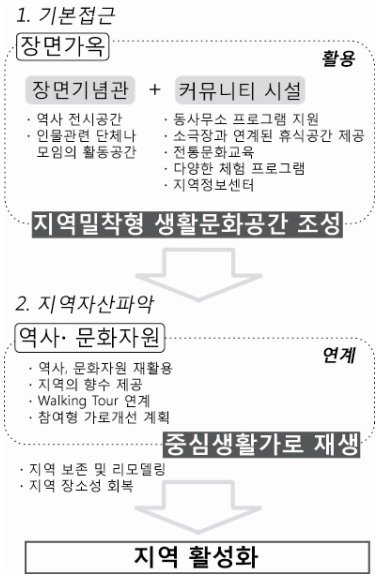
<표 12> 지역 역사·문화자원 목록

구 분 및 명 칭		내 용
전통역사 문화자원	심우장	• 1985년 7월 5일 서울특별시기념물 제7호로 지정 • 남향을 선호하는 한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북향집. 독립 운동가였던 그가 남향으로 터를 잡으면 조선총독부와 마주보게 되므로 이를 거부하고 반대편 산비탈의 북향 터를 선택했기 때문
	김종국가(家)	•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21호, 문묘의 한 부속 건물
	김상협가(家)	• 서울민속자료 제28호, 김상협 전 국무총리의 가옥으로 1930년대 지어진 한옥으로 당시 도시형 한옥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음
	선잠단지	•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83호로 지정
지역 문화자원	짚풀생활사 박물관	• 짚과 풀로 만든 민속자료를 수집, 연구하여 전시하는 세계 유일의 짚·풀 전문박물관 • 짚·풀문화 교육장으로서도 부족함이 없음
	간송미술관	• 한국 전통미술품을 주로 소장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민간박물관 • 전시보다는 미술사 연구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음
	한무숙 문학관	• 소설가 향정 한무숙 선생이 1953년부터 작고할 때까지 40 년 동안 살면서 온 정성을 다하여 가꾸고 다듬은 전통 한옥
	소극장	• 대학로의 소극장들이 비싼 임대료를 피해 혜화동에 생겨나고 있는 추세임
	명륜동에서 찾다	• 접는미술관 프로젝트중 하나로 명륜동3가에 열린 주민들과 단합된 설치전시
근대역사 문화자원	혜화동성당	• 등록문화재 제230호로 1960년에 건립한 강당형 성당 건물 • 당시 고딕양식의 가톨릭 성당 건축의 정형화된 틀을 깬 양식으로 이후 근대적 성당 건축의 모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종교사적·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임
	최순우 옛집	• 등록문화재 제268호로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최순우 선생이 여생을 보낸 한옥 • 시민문화재 1호로 선생의 생전 모습이 담긴 조선말기 선비 집의 운치를 느낄 수 있음
근린 문화자원	수연산방	• 문강화와 무서록을 쓴 상허 이태준의 고택. 전통한옥에 문을 연 전통 찻집 1호
	혜화동사무소	• 2007년 11월 23일 한옥을 리모델링한 이후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음
	필리핀마켓	• 매주 일요일에 동성중고등학교에서 혜화동 성당 입구까지 열리는 필리핀 장터

AURIC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All Digital Rights Reserved.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http://www.auric.or.kr

Ⅳ. 지역장소화 계획 기본 구상

1. 장면가옥 활용 구상



(그림 30) 지역장소화 계획 기본구상

장면가옥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한식과 일식 그리고 서양목조식의 절충식인 특성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 유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환경개선이나 단편적인 보존정책이 아닌 지역민의 활동을 수용하는 것이 장면가옥 활용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장면가옥의 기본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가옥의 모습과 생활상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역사문화재로서 역사적 인물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니 만큼 기본적으로 장면기념관의 형식을 가진다. 특히 장면총리가 집무실로 쓰던 사랑채의 사랑방과 수많은 정치적 모임이 있었던 응접실은 가옥에서 인물과 가장 관련이 깊은 공간으로 사료됨으로 당시 모습을 재연시키고 전시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응접실은 때에 따라서 운석기념회, 운석장면연구회와 같은 인물관련 단체나 모임의 활동공간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둘째, 장면가옥은 가옥이라는 성격으로 근린생활 영역에 속해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의 생활문화재로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인프라를 지역민들의 생활과 연계시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간적으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특히 안채의 경우 한옥목조구조를 띄는 한옥의 모습뿐만 아니라 부엌과 욕실을 통해 근대기의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시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지역 학교들과 연계하여 전통문화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셋째, 장면가옥은 바로 뒤편에 방치되어 있는 한옥과 함께 좀 더 통합적으로 계획될 수 있다. 지역 학교들과 연계하여 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 되거나, 소극장이나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과 연계된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자들에게도 자유롭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오픈스페이스로 이용되어 지역의 공공영역을 확충 할 수 있다. 수행원실은 일부 찻집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중심생활가로 구상

가옥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닌 이용자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활중심가로에 함께 엮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자산 발굴하여 공간을 되살리고 통합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적 성격을 띄고 있는 중심생활가로인 우암로의 특성을 살려 줄 필요가 있다.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쓰이고 있는 혜화동사무소와 지역의 한옥들이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옛 영화장면 속의 문방구의 모습 등을 함께 묶어줌으로서 역사문화경관과 함께 지역의 장소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향수어린 기억의 장소로서의 옛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서울성곽탐방이나 서울역사탐방의 워킹투어와 함께 지역에 잔존하는 문화·역사자원을 연계시킴으로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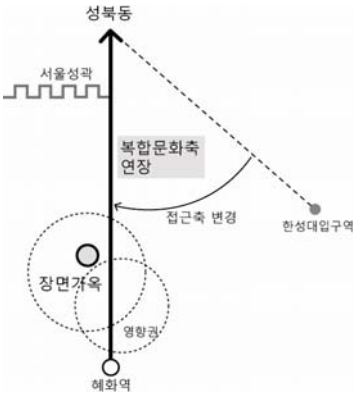
3. 광역적 지역 구상

대학로는 공연문화의 메카로서 이를 즐기려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며, 혜화동의 중심생활가로인 우암로 끝에 위치하고 있는 성북동 일대는 현재 역사·문화적 자원뿐만 아

AURIC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All Digital Rights Reserved.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http://www.auric.or.kr

니라 드라마 촬영지나 맛집, 카페 등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성북동의 이러한 장소들은 성북동 삼거리부터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성대입구역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타고 가거나 20분가량을 걸어 올라간다. 이는 혜화역에서 우암로를 거쳐 보행으로 바로 갈 수 있으나 길의 위계가 낮아 지역주민이 아니고선 잘 알지 못하며 현재 혜화로터리의 고가도로로 인해 시각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혜화동은 박물관이나, 소극장등이 새롭게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도심재창조 계획'의 '복합문화 축' 조성계획은 남산에서 동대문을 지나 대학로의 끝인 혜화동로터리까지 계획되어 있다. 이 계획은 이렇게 끊겨있는 두 지역을 장면가옥과 함께 혜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역사·문화적 자원들을 통해 접근축이 변경됨으로서 '복합문화 축'의 연장선으로 지역적으로 장소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림 31) 광역적 지역 구상

V. 결 론

1. 연구의 결론 및 의의

본 연구는 기존의 인물기념시설 등록문화재가 등록 후 마땅한 활용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거나 점적인 활용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황을 비교하고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장면가옥을 중심으로 기존의 기념관이나 박물관 형태의 편중된 활용에 있어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함으로서 생활문화재 형태의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또한, 등록문화재의 활용 형태와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에 있어서 단순한 공간배분이 아닌 인터뷰를 통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가옥의 계획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당시 가옥의 활용 및 생활 모습을 배경으로 각 공간을 구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역측면의 등록문화재의 활용에 있어서 생활문화재로서의 활용은 지역 재생적 연계방안으로서 지역 전체와 함께 엮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함께 연계 확대하여 확대된 워킹투어 뿐만 아니라 장소화를 통한 가로개선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활성화는 광역적 나아가 복합문화축의 연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추후 연구방향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장면가옥과 지역을 연계한 활용계획을 더욱 구체화 시키고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체로서의 모습을 형상화시켜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물리적 활용계획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관리까지의 통합된 시스템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물기념시설 등록문화재의 지역적 활용방안 계획 시 하나의 대안으로써 지역의 장소성 회복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AURIC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All Digital Rights Reserved.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http://www.auric.or.kr

<참고문헌>

1. 문화관광부, 『근대문화재 문화공간 활용방안 심포지움』, 2007.
2.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2006.
3.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조사연구 보고서』, 1999.
4.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한옥주거지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2006.
5. 김지성, "근대건축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등록문화재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 이완건, "도심지 근대건축물의 보존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Vol21 No3, Mar. 2005.
7. 임은영, "역사환경을 고려한 주거환경 정비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8. 한영숙 외, "오래된 도시무화근린의 재생을 위한 생활문화가로구상", 『추계학술발표대회』, 한국도시설계학회, 2004.
9. 이주형 외,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22 No3, 2006.
10. 강동진, "미국 지방도시의 역사적 중심가로 재활성화 방법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Vol.42 No.4, Aug. 2007.
11. 허동현, 『건국·외교·민주의 선구자 장면』, 분도출판사, 1999.
12. http://www.cha.go.kr/ 문화재청.
13. http://info.cha.go.kr/ 문화재청 정보센터.

AURIC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All Digital Rights Reserved.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http://www.auric.or.kr